

# 비거리 확 늘린 신지에 샷 좀 볼까

내일 호주오픈 개막... 최나연 등과 대결 올 시즌 세계 여자골프 판도 가능

세계여자프로골프의 감자들이 호주 멜버른에서 2011년 판도를 가늠할 샷 대결을 펼친다. 3일부터 나흘간 호주 멜버른의 커먼웰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호주여자오픈 골프대회는 총상금 60만 호주달러가 걸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시즌 개막전이다.

이 대회는 17일 태국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혼다 LPGA 타이랜드에 앞서 개최돼 상위랭커들이 모두 출전하지는 않지만 동계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쌓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이목을 끄는 선수는 세계골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신지에(23·미래에셋)다. 작년 말 스윙코치를 글렌 도어티로 교체하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동계훈련을 했던 신지에는 새해 첫 대회로 호주여자오픈을 택했다.

신지에는 2008년 이 대회에서 카리 웹(호주)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준우승에 그쳤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신지에와 함께 우승 경쟁을 펼칠 선수로는 지난해 LPGA 투어 최우수선수 청야니(대만)가 꼽힌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이기도 한 청야니는 올해 LPGA 투어 무대에서 신지에, 최나연(24·SK텔레콤) 등 한국여자골프단과 매 대회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번 대회는 신지에뿐만 아니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유소연(21), 윤채영(24·이상 화화), LPGA 투어 루키 송민영(22) 등이 출전한다.

한편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TPC에서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이 열려 양용은(39)과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가 출전한다.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은 같은 기간 카타르 도하 골프장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투어 카타르 마스터스에 출전해 세계랭킹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2위 마르틴 카이머(독일)와 샷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일본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한술밥을 먹게 된 한국 투·타의 간판 박찬호와 이승엽이 화려한 2011시즌을 그리며 1일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 한류 5총사 '열도 정복' 스타트

박찬호·이승엽·임창용·김태균·김병현 담금질 돌입

박찬호(38)와 이승엽(35·이상 오릭스), 임창용(35·야쿠르트), 김병현(32·라쿠엔), 김태균(29·지바 롯데) 등 일본프로야구단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5총사가 1일 2011년 시즌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날부터 일본프로야구 12개 구단이 일제히 스프링캠프를 열면서 6개월 이상 진행될 한국 선수들의 대장정도 막을 올렸다.

이승엽, 임창용, 김태균에 이어 올해는 미국프로야구에서 대표적인 코리안 빅리거로 이름을 날렸던 박찬호와 김병현이 가세, 일본 야구에 출전 시선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다섯 명의 한류 야구 전사들은 전날 캠프가 시작될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했다.

작년 일본 진출 첫해 일본시리즈 정상상을 오릭스 선발전의 한 축을 맡을 박찬호는

"우선 1승을 거둔 뒤 다음 목표를 정하겠다"며 일본 데뷔에 신중한 자세다. 그러나 오카다 아키노부 오릭스 감독과 일본 언론은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투수 통산 최다승(124승)을 거둔 박찬호의 이력을 높이 사 '우승 청부사'라며 벌써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배수진을 친 이승엽은 부활의 첫 열쇠로 30홈런과 100타점을 첫손에 꼽았다. 대구에서 동계훈련을 착실히 치른 만큼 불박이 1투만 궤한다던 3년 만에 재기도 노려볼 만하다.

최대 3년간 15억엔이라는 재판을 터뜨린 임창용은 생애 첫 구원왕을 향해 '뽕죽구'를 흔차기 뿌린다.

작년 일본 진출 첫해 일본시리즈 정상상을 밟았던 김태균은 체력 안배에 실패해 후반

기 고전했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던 20홈런과 100타점 이상을 거둬들일 것으로 점쳐진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86세이브를 거뒀으나 3년간 실전에서 뛰지 못하다 일본에서 어렵게 재기 기회를 잡은 김병현은 라쿠엔의 취약 포지션인 뒷문 단속에 팔을 걸어붙인다.

작년 라쿠엔 입단 테스트 때 시속 130km에 머물던 구속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이번 캠프의 숙제다.

박찬호와 이승엽은 18일 오키나와 본섬으로 복상, 다른 팀과 평가전을 치르고 24일부터는 고치현으로 자리를 옮겨 시범경기를 준비한다. 임창용과 김병현, 김태균도 중순부터 오키나와 본섬에서 열린 연습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쌓는다. /연합뉴스

# V리그 올스타 휴식기 '대세는 훈련'

지난해 12월 4일부터 쉴 틈 없이 달려온 2010-2011 프로배구가 3라운드까지 열전을 마치고 휴식기에 들어갔다.

오는 6일 열리는 올스타전을 제외하면 선수들은 8일까지 지친 몸을 추스를 기회를 얻었다. 가장 늦게 시작하는 팀은 12일에 경기를 재개한다.

그러나 대부분 팀은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쉼같은 휴식을 취하고 남은 시즌을 대비한다.

고공비행 중인 대한항공은 설날에만 쉬는 편이다. 신영철 감독은 "4라운드가 최대 고비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헛되지 않게 휴식기를 잘 이용하겠다"고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대한항공을 맹추격 중인 현대캐피탈은 '패턴 만들기'가 과제로 떠올랐다.

김호철 감독은 "부족한 리시브를 강화하면서 상황에 맞는 패턴을 만들겠다"며 "3라운드까지 패를 쉬웠기 때문에 설날에도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LIG손해보험도 '설날 훈련'을 택했다.

김상우 감독은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 (이)경수와 요한이가 버틴 레프트도 세밀함이 떨어지고 센터도 마찬가지로"라며 "수비와 리시브를 위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를 4위로 마감한 우리캐피탈은 설날까지 쉬는 편이다. 12일에 시즌을 재개하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 비해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박희상 감독은 "선수들이 아직 여러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다. 체력훈련 외에도 멘탈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4강 진입을 걱정해야 하는 삼성화재는 명

팀 마다 약점 집중 보완 후반기 4강 레이스 채비

예를 회복하겠다면서 칼을 갈고 있다. 특히 3라운드 막판 부활의 조짐을 보인 거포 박철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신치용 감독은 "최근 박철우와 세터 유광우가 경기 비디오를 보면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성과가 지난 29일 경기에서 드러났다"면서 "휴식기에 이 방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여기부 선두팀 현대건설의 특성은 '범실 줄이기'다. 황현주 감독은 "경기가 없는 동안 체력과 근력 운동을 하고 범실을 줄이기 위한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들인 챔피언에서 하위권으로 처진 인삼공사와 7연패 탈출 뒤 다시 2연패에 빠진 GS칼텍스도 휴식기 대부분을 연습에 쏟으며 지시간 되찾기에 주력한다. /연합뉴스

http://kjmarathon.co.kr



2011년 마라톤의 시작은 3월 1일 광주에서

#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1. 3. 1 | 화 08:30~16:00 풀코스 출발 09:00

|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 남평교  
| 대회종목 | 5km, 하프코스, 풀코스  
| 접수마감 | 2011년 2월 14일 (월)

- 참가비
  - 풀·하프 : 20,000원
  - 5km : 10,000원
- 단체참가 특전: 지원금 지급
  - 하프코스 이상 50인 이상 참가단체 : 20만원
  - 하프코스 이상 30인 이상 참가단체 : 10만원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광주일보사)
  - 광주은행 001-107-437903
  - 국민은행 551-01-1468-999
  - 농협 617-17-00237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육상경기연맹  
|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광주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광주남부경찰서·나주경찰서  
| 참가문의 | 062-220-0541